

# 제주도와 동아시아 도서간 협력과 대학의 역할<sup>1)</sup>

고성준\* · 유철인\*\* · 송재호\*\*\*

## 목 차

- I. 서론
- II. 동아시아시대의 도래와 제주도의 세계화
  - 1. 동아시아시대의 도래와 그 의미
  - 2. 동아시아시대 제주도의 위상과 세계화 구상
- III. 제주도의 세계화 전략으로서 동아시아 도서간 협력
  - 1. 동아시아 도서들의 성장 잠재력
  - 2. 동아시아 도서간 협력의 현황과 과제
- IV. 동아시아 도서간 협력을 위한 대학의 역할
  - 1. 대학교육의 세계화
  - 2. 대학간의 국제협력
- V. 결론

## I. 서 론

태평양 세기,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제주도의 위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대륙시대와는 달리, 해양시대에 있어서 섬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그야말로 해양시대를 이끌어갈 첨병으로, 21세기적 해양일류한국의 발전을 이끌어갈 첨병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섬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좀 더 구체화된 제주인의 삶의 복지를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때이다. 이를 테면 그것은 대륙문명시대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제주발전 구상에서 벗어나 해양시대를 열어가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제주의 위상학과 관련된다.

1) 이 연구는 '96학년도 제주대학교 자체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다. 안미정(제주대 사회학과 석사과정)이 자료수집을 도와주었다.

\* 고성준 제주대 교수

\*\* 유철인 제주대 교수

\*\*\* 송재호 전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미 지난 97년 7월 23-25일에 제주도가 주도가 되어 발리주, 해남성, 오키나와현간의 다국적 지방정부간 공동협의체로서 섬관광정책 포럼을 창설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하여 앞으로 제주도는 도서시대, '섬들간 네트워크' 중심지로 도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해양한국을 이끌어가는 침병에 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진취적 구상을 그려보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천전략의 우선 순위는 이미 창설된 섬관광정책 포럼을 중심으로하여 도서간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과 아울러 협력의 전망과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여기서 도서간 협력을 위한 학문적 토대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대학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 II. 동아시아시대의 도래와 제주도의 세계화

### 1. 동아시아시대의 도래와 그 의미

세기 전환기적 상황 앞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문명의 중심권으로 그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誌의 맥래(N.Macrae)기자가 일찍이 지적한 바처럼, 바야흐로 세기는 영국의 세기(1775-1875)를 지나 미국의 세기(1875-1975)를 거쳐 태평양의 세기(Pacific century)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태평양의 세기가 갖는 일차적인 의미는 해양문명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는 데 있다. 20세기가 육지의 세기라면, 21세기는 해양문명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인류는 근대 산업사회 발전과정에서 지구의 가용자원을 무한한 것으로 보고 공업화 위주의 개발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인구, 식량, 자원과 에너지, 환경, 도시화 등은 앞으로 인류가 극복해야 할 문제군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지구상에 남겨진 '마지막 개척의 장이자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바다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홍승용, 1997:57)

그러나 바다가 인류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다 자체가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에 있다. 최근 미국의 과학저널 「네이처」지는 해양의 기후 조정력, 생태계의 재생산능력, 오염물질의 자정능력 등 생태적 가치는 매년 21조 달러에 이르며, 이는 인류가 매년 경제활동으로 생산하는 GDP의 1.3배에 달하는 대단한 크기이다.

이처럼 바다는 풍부한 식량, 광물, 에너지 등 자원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어주는 해상 교통의 무대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이 이와 관련하여 태평양이 주목받는 이유는 아시아가 유럽과 아메리카라는 두 대륙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사실 돌이켜 보면, 태평양은 서양 제국주의의 팽창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미국의 듀크대학 교수인 역사학자 딜릭(A.Dirlik)이 설파하고 있듯이, 태평양은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스페인의 호수'에서 '영국의 호수'를 거쳐 '미국의 호수'로 그 주인을 바꿔 왔던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해양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다시 태평양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국가들 사이에 암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중국이 이를 방관하지 않고 자기 몫을 적극적으로 챙기려 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이처럼 해양시대를 앞두고 태평양이 세계적인 주목을 끄는 현실적인 이유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지역으로 발전했으며 국제정치와 국제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아시아 대륙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곳으로 바로 일본, 한국, 중국(홍콩 포함), 대만, 싱가포르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이 태평양 시대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데 커다란 특징이 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존슨(C. Johnson)은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를 통틀어 일찍이 '고도 성장 체계'(high growth system)라고 부른 바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한국(북한 포함), 일본, 중국으로 구성된 동북아시아와 대부분 ASEAN의 구성 국가들인 동남아시아로 지리적인 구분을 해 볼 수 있으나, 편의상 기술수준을 중심으로 선진공업국(일본), 신흥공업국(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사회주의 중국 및 개발도상국(ASEAN 국가)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이들로 구성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거품 제거라는 면에서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일본은 서구를 제외하면 최초로 산업화에 성공한 경제대국이다. 일본경제는 미국, 독일 다음으로 규모가 크며 아시아 경제권의 2/3를 차지하고 있듯이 실로 그 위력이 막강하다. 일본을 제외하고, 1994년을 기준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0%로 이는 EU의 32.7%, NAFTA의 32.4%에 비하면 작으나 그 증가율을 감안하면 향후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할 역할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주요국들의 무역구조를 산업내 무역지수를 통해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산업내 무역수치가 1970년대초의 0.37에서 1980년대 후반 0.23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의 경우도 이러한 추세를 보여 주고 있어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이 종래의 미국 의존으로부터 역내국들과의 상호의존 심화 추세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경제성장률에 있어서도 ASEAN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미국과의 상관관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흥공업국들과 ASEAN 국가들과의 상관관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점 커 가고 있으며 역내 신흥공업국 및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감안해 볼 때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규모에 있어서 EU나 NAFTA와 어깨를 나란히 할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20세기가 지나기 전에 아시아가 유럽과 미국 경제권을 앞지랄 것이라는 일부 학자나 실무자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아시아 대륙은 전세계 인구의 40%, 국민총생산의 54%, 에너지소비의 49%, 그리고 교역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한 예를 들어, 만약 APEC이 경제공동체로 거듭난다면 세계경제의 비중으로 볼 때 EU나 NAFTA보다 잠재력이 크다 하겠다. 미국이 APEC에서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나, 유럽이 ASEM을 통해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도 향후 세계경제에서 아시아 대륙이 지니는 커다란 위상과 역할에 기인한다. 아시아 대륙은 자본투자, 기술이전, 시장규모에서 세계 여타 지역보다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기에 미국이나 유럽에게 강력한 매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지역으로 발전했으며 국제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평화의 분위기도 이러한 경

제발전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국제적 냉전의 종식이 낳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갖가지 분쟁과 전쟁에 찌들었던 이 지역에도 확산되고 있으며, 따라서 태평양이란 말 뜻 그대로 「큰 평화의 바다」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김학준, 1997:3).

예컨대 옛 소련의 해체에 따라 막강하던 소련의 극동군사력이 크게 줄었으며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대결은 완화되었다. 한때는 전쟁에 한 걸음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나빠졌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정상화됐으며, 인도차이나에도 93년의 캄보디아 분쟁 해소를 고비로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새 국면이 열리고 있다. 중동에서의 부분적인 화해 성립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수교도 이루어졌고, 일본 국왕의 중국방문이 실현되는 등 전쟁을 치렀던 두나라가 심리적 조정에도 성공해 가고 있는 듯 하다. 한마디로 말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특징짓던 이념적 대결과 영화적(零化的: Zero Sum) 경기의 사고방식은 대체로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 지역 국가들이 모두 실용주의와 합리주의에 바탕을 두고 국내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온 힘을 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외적 무력대결에 쓸려던 국력이 이제는 「민주화-경제발전-평화」의 '3각 선순환'형성으로 풀리기 시작했다는 징후를 우리는 여러 나라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에서 옛 시대적 권위주의 체제와 지도자들이 몰락했거나 퇴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문민개혁적 합리주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21세기에 대비하는 점진적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우리는 21세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도 유럽안보협력회의(OSCE)와 본질적으로 비슷한 성격의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를 발족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이 기구를 탄생시킬 수 있다면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장래가 반드시 밝지만은 않다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사무엘 헌팅톤 교수에 의하면, 아시아에는 하나가 아닌 '빛'과 '그림자'라는 두 개의 아시아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빛으로서 아시아는 경제적인 아시아로서, 세계의 이목이 태평양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동아시아의 '빛'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분명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빛의 넘어에 현실적으로 가로놓여 있는 그림자가 있음에 우리는 좀 더 세심한 관찰을 요한다.

그림자로서 아시아는 다음 세기에 아시아를 혼란에 빠뜨릴 정치적 불안정, 국제적 분쟁의 씨앗들로서, 그것들은 냉전종식의 부산물이며 경제발전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러한 분쟁의 씨앗이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일·러, 일·중, 중·러 등의 영토분쟁과 국경분쟁, 소수민족들의 분리주의 및 민족분쟁, 그리고 종교분쟁이다. 그리고 서방과 유럽의 추세와는 반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군비증강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 군비증강의 비용이 세계 가운데 아프리카의 앙골라를 빼놓고 나면, 그 나머지의 모두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이거나 중동 국가라는 사실, 그리고 그 14개국이 무기 수입원을 미국 하나로부터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로까지 다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결코 태평한 지역만은 아님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군비증강과 아울러 심각한 것은 이 지역에서 핵무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북한은 최소한 핵폭탄 1~2기를 만들기에 충분할 것으로 여겨지는 플루토늄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제난을 비롯한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북한은 동아시아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울 가장 현실적인 위협대

상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분쟁의 씨앗들은 대체로 냉전종식의 부산물이다. 다음으로 경제발전의 산물로서 예측되는 동아시아의 그림자는 이 지역의 맹주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벌여질 일·중 간의 패권경쟁이다. 이 지역에서 군비증강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도 이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이 언젠가는 위협적인 수준으로 치닫게 되리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이끌어 온 것은 일본이다. 일본이 세계 전체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의 3.8%에서 1990년에는 15.2%로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GDP는 44.9%에서 28.9%로 하락했다. 1980년대에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함께 대 일본 수입량도 급증하여 ANICs와 ASEAN의 대일수입은 각각 2.5배, 3배 증가하여 일본의 전세계에 대한 수출증가를 1.6배를 훨씬 상회했다. 동시에 일본의 수출시장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을 능가했다. 이제 일본은 이러한 경제발전을 토대로하여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대국이 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미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들어섰으며, 이 지역에서의 일본의 현실적인 위상을 인정한 미국은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을 통하여 일본의 독자행동을 한계지우려 하고 있다(김광린, 1997).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독주에 강한 제동을 걸기 시작한 나라가 중국이다. 거대한 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지닌 중국의 잠재력은 중국 내부적 상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에 못지 않게 세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5000여 만의 화교 네트워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전역에 살고 있는 화교들의 자산규모는 2-3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화교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지닌 경제력의 규모는 세계 3위를 차지한다. 화교들은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무역과 투자 모두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동아시아에 대한 자본공급 및 외국인 투자부문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

중국 경제발전과 화교의 연계는 '대중화경제권'으로 표현된다. 이는 지난 7월 1일 반환받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홍콩-대만을 묶는 것으로 이들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해 외국의 압력과 내전으로 분할되었던 정치적 실체를 다시 통합하여 중국을 재건한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현재의 개혁·개방 정책을 강화하고 해외자본 유치와 경제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유연하게 적용시키면서 각종 정책대안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관성 있는 개혁·개방조치는 중국계 자본의 국내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계속하여 이러한 추세가 나간다면 중국은 멀지않은 21세기에는 아시아의 1등 국가로 자리잡고 화교네트워크를 통한 중화경제권을 형성해 대외적으로 독자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상과 의욕을 갖고 있는 중국은 벌써부터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은 미국과 일본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은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은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배제로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 다시 손잡으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이 지역을 둘러싼 기존 세력들 간의 패권싸움으로, 벌써부터 신냉전을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신경전이 미·일과 중·러 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빛'으로서 동아시아의 미래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관건은 이들 역내 국가들 간에 협력체제와 평화체제를 구축해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어느 한 국가가 동아시아에서 일방적인 패권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평화적 수단을 통한

협력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관련국 간의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을 달성하는 것과 안보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을 이룩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990년대 들어서 일본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은 전후 최대의 불황을 겪고 있다. 한편 중국경제의 미래도 그렇게 낙관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동안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은 중국정부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대만과 홍콩을 중심으로 한 화교집단의 대 중국 투자였다. 또한 최근 한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등은 최대의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IMF의 금융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과 실업문제 등을 안고 있다. 엔고에 따른 일본자본의 중국 및 동남아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과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도 해외투자를 통한 생산거점 확보를 서둘러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이들의 해외 생산 거점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거대한 영토는 무한한 매력을 제공해 준다. 점차적으로 일본과 ANICs의 기술·자본과 중국의 노동력·시장을 결합하는 동아시아의 경제질서가 구축되리라 본다. 바람직한 동북아지역의 생존전략은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산업고도화로 나아가는 수평분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달려있다고 본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구도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역내 공식적인 경제협력기구의 창설 가능성 여부이다. 현재로서 동아시아 지역은 협력기구 창설을 위한 경제적·문화적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나 일본과의 정치·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능적인 통합과정은 더욱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적 통합과정에 따른 경제협력체제의 구축은 안보협력 체제의 모색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 2. 동아시아시대 제주도의 위상과 세계화 구상

태평양 세기,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제주도의 위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중국대륙·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삼각형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 의하여 둘러싸인 동북아 해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는 역사적으로도 항상 이들의 관심 지역이 되어왔던 것이다. 한편,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새롭게 클로즈업되는 계기가 된 것은 역시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하면서이다. 지난 '91년 한·소 정상회담은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고양시켜 주었다. 제주만이 안고 있는 역사성, 자연조건, 지리적 위치 등은 국제평화를 가져다 줄 장소로 부각되었다. 특히 이 정상회담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탈냉전의 상징성을 갖게 됨으로써 제주가 단순한 국제관광지역에서 '평화의 섬'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주지하듯이,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대통령이 제주방문 이후 제주를 찾는 사회주의 국가의 원수급 인사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지난해에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바 있고, 여기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이 제의된 사실도 주목될 만한 일이다.

다른 한편, 냉전종식 이후에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체간의 교류협력과 경제협력도 한층 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제주도의 위상과 지리적 이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특히 제주도는 지경학적으로 볼 때,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을 동북아경제권으로 결합시키는 고리이면서 동북아경제권과 동남아경제권을 연결하고 또한 동북아경제권과 서태평양경제권의 연계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도는 동북아 해역의 도서들 및 동북아해역 연안 지방자치체들 그리고 동북아 국가들, 나아가 환태평양역내 교류 및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경학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홍콩차이나 이후의 홍콩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지역인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이고 해양시대이다. 대륙시대와는 달리, 해양시대에 있어서 섬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그야말로 해양시대를 이끌어갈 첨병으로, 21세기적 해양일류한국의 발전을 이끌어갈 첨병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섬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좀 더 구체화된 제주인의 삶의 복지를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때이다. 이를 태면 그것은 대륙문명시대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제주발전 구상에서 벗어나 해양시대를 열어가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제주의 위상학과 관련된단다.

### (1) 태평양 시대,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의 위상학

태평양의 세기란 말그대로 「큰 평화의 바다」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평화는 우리 제주도가 국제화로 가기 위한 기초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21C적 제주의 국제화의 모색은 '평화의 섬'을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주도는 동북아 해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중국대륙·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삼각형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 의하여 둘러싸인 동북아 해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역사적으로도 끊이없이 외세의 침입이나 간섭을 받아왔다. 외적의 침입과 외세의 간섭으로忍苦와 受難으로 점철된 제주의 역사는 일찍이 高·梁·夫 三族의 氏族中心의 사회로부터 시작되었고, 고려시대에는 북방에서 오는 몽고군의 침략을 막고, 반격의 태세를 갖추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고려시대 이후 일본 왜구의 침략도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일제시대 제국침략기에는 75,000명이나 되는 일본 관동군의 병참기지가 되어야 했고, 일제패망과 함께 상륙한 미군에 의해 제주 요새화가 기도되기도 했던 바 있다. 해방이후에도 제주 세계 냉전체제로의 재편과 남북한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4·3사건'을 겪음으로써 인구 20만 중 5만명이나 희생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주도는 고려로 편입된 이래 최근까지만 해도 항상 변방지로 남아있어야 했다.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온갖 침략을 겪어야 했지만, 대내적으로는 항상 중앙의 관심에서는 멀리있는 변방이었고 수탈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제주는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중앙의 관심밖에서 원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조선시대에는 겨우 중앙에서 쫓겨난 관리들의 유배지일 뿐이었고, 말을 길러 받치는 방목장일 뿐이었다. 왜구의 침략, 관의 수탈, 자연재해 등으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고, 삶의 기회를 찾아 떠나는 제주인에게 200여년 동안 출륙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하였었다. 변방으로서의 제주의 위상은 해방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4·3사건'과 '한국전쟁'은 제주인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리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제주도가 대내외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제주도가 관광자원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서이다. 이것은 지나온 과거에 비한다면 제주도의 획기적인 위상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륙문명시대였기에 섬에 대한 인식은 계속하여 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다. 역시 섬은 해양시대에 빛을 발할 기회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이상우, 1997:79).

우리는 제주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동안 겪어야 했던 침략과 간섭의 역사를 잊어서도 안되며 되풀이 해서도 안된다. 지금 불고있는 세계적 탈냉전의 기류가 동북아시아에서도 어느정도 해빙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지닌 것이었음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다. 지난 80년대 동안 미국은 상당히 강력한 해군력을 동아시아에 유지시켜 왔고 아직까지도 그 해군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러시아도 미국에게 계속해서 소위 재래식 무기군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실히 플랜을 갖고있는지는 더두고 지켜보아야 할 전망이다. 일본이 재무장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도 우리는 앞에서 보았다. 더구나 남북한 관계는 아직도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아직도 제주를 둘러싼 동북아 해역이 그리 평온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야말로 특별한 '계기'로 제기된 제주 '평화의 섬'구상이 필연성을 갖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지난 시기의 발상과 의식에 안주하게 된다면 제주도는 그냥 강요된 전략적 요충지로 남을 뿐이다. 태평양 시대에 제주도는 21세기적 해양일류한국의 발전을 이끌어갈 첨병으로, 세계가 안고있는 대결과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자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도의 위상학은 바로 그러한 점들이 고려되는 진취적 구상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제주도는 아시아·태평양의 제네바나 비엔나가 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평화센터로서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는 동북아 국가들간의 평화·안보·경제·기타의 협력을 위한 국제회의의 개최나 협력체 본부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는 전략적 방안으로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한 연수원과 연구소의 설립, 국제 해양분쟁 해결센터의 설립 등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작업과 아울러 각종 정상회담 및 사무국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탈냉전 시대에 '평화의 섬' 제주도는 통일과 민족문제를 다루는 장소로도 최적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남북회담 장소로서의 판문점과 서울 그리고 평양은 장소 자체가 회담대표들로 하여금 화해 노력보다는 '제로-섬 게임'에 임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평화의 섬'인 제주는 남북한 모두에게 부담없는 대화의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이며,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한 정상이 만나 민족의 장래를 논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의 섬'구상이 실천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제주도가 먼저 비군사화, 평화지대화가 모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사회 자체가 통합과 평화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역사와의 화해, 그리고 지역간, 계층간, 단체 조직간의 화합과 의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 (2) 도서 시대, '섬들간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 제주의 위상학

대륙 문명시대에 섬들은 역사의 변두리에 밀려나 있었다. 문명의 중심과 해양으로 차단된 고립의 생활터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양 문명시대가 되면서 섬들은 먼거리에서도 이웃처럼 서로 접촉할 수 있는 문명접촉의 중심부로 되었고, 그 결과로 새로운 문명발전의 중심지로 나서게 되

었다. 특히 21세기는 대륙중심의 인류문명이 해양중심의 문명으로 옮겨가는 시대가 될 것이며, 또한 오늘의 국가중심의 세계체제가 탈국가적인 시민중심시대로 바뀌어가는 시대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섬들의 지위가 인류문명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고 섬들간의 초국가적 협력이 중요해질 것이다(이상우, 1997:76-79).

‘강인과 진취’, ‘폐쇄와 소외’라는 섬사람의 보편적 정서, 관광진흥과 아이덴티티 확립을 제1의 지역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책목표의 동질성, 섬들이 일반적으로 외부인에게 주는 신비와 매력 등, 이러한 섬들이 갖는 공통성이 특히 도서시대를 맞아 협력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인간간의 자유로운 이동현상을 본질로 하는 관광은 바로 미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셈이다. 또한 관광의 이념이 자유와 평화, 복지와 형평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 관광에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관광은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은 개방화, 세계화라는 상호의존의 시대정신에 적합한 산업이다. 또한 관광은 미래를 지향하는 산업으로서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함에 있어서도 세계정치경제질서와 훌륭한 상호보완적, 상호의존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미래학자 허만 칸은 그의 저서 ‘향후 200년’에서 서기 2000년까지는 관광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영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UNESCO의 한 보고서도 2000년이 되면 관광달러가 석유달러를 제치고 국제간 자본흐름의 우선 순위에서 제1순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유럽개발은행의 총재였던 자크 아탈리 같은 미래학자는 21세기의 지구인들은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아 이리저리 유랑하는 유목민과 같은 생활을 할 것으로 예견, 이에 필요한 ‘유목물품’ 생산산업과 관광산업이 전례없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1990년 전세계 관광수입은 약 2조7천5백억 달러로 하루에 약 57억 달러씩 소비된 셈이고, 이 액수는 세계군사비의 3배 가량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기에 관광교통수입을 보탠다면 40-50%가 더 증액되어 관광은 세계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산업으로 위치하게 된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에서의 관광산업은 총 서비스부문 교역의 약 1/3을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총 서비스부문 수입의 2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관광은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필수적인 수출품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리브해 지역의 국가인 경우 관광수입은 전체 외환수입의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경제의 가장 주요한 산업 구성부문을 이루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농업수출을 초과하는 최대의 수출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구촌 경제시대’의 제주도 생존 및 발전전략의 핵심은 경쟁력 강화로 압축될 수 있다. 그러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하여 모든 분야에서 무한경쟁을 야기하는 지역이기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란 각 지역이 ‘절대우위논리’에 입각하여 각자 자신의 최선을 살리면서 타지역의 장점을 존중해 주는 공존공영의 이념형성과정에서 파생된 개념이어야 한다.

제주의 세계화는 서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이 스스로 세계로 나아가듯이 제주 스스로 제주의 특수성을 자산으로 하여 세계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지방화란 명제가 부각된다. 제주의 세계화는 지방화와 동전의 앞뒷면 처럼 뿔래야 뿔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제주의 지방화란 제주도민에 의해 발현된 제주의 특수성을 인식하여 그것을 기초로 제주의 힘으로 제주인의 삶의 구도를 짜는 것을 말한다. 제주의 국제관광정책도 제주의 생태와 제

주의 문화를 반영하면서 제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결국 통상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찾아야 할 제주의 세계화 전략은 이제 더욱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그것은 제주도의 절대장점이라 할 수 있는 관광부문에서 부터 모색되어야 한다. 이제 관광을 통상으로 재평가하고 1차산업의 수출증대노력 이상으로 국제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관광산업이 거의 모든 서비스 부문을 포괄하는 총체적 시스템산업임을 고려할 때, 관광산업은 제주통상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가 오늘 추진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세계화 전략은 '관광을 통한 남방의 교'로 판단된다. 이미 제주도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거나 곧 체결할 남방의 도서관광지들을 묶어내어 관광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전략의 핵심이요, '東아시아 島嶼觀光網 構想'이 그 전략의 요체인 것이다.

동아시아는 폭발적인 관광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의 개방이 세계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의 동아시아 관광발전추세, 동아시아가 지속적으로 구가하고 있는 고도의 경제성장, 매력적인 관광자원의 磁氣力, 신비스러운 동양문화 등이 그 잠재력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들이다.

특히 21세기 초를 기준으로 할 때, 동아시아의 인구는 남북한 8천만명, 중국 12억, 일본 1억2천, 기타지역 2억 등을 모두 합치면 16억이 된다. 이 16억은 세계인구의 1/4을 넘는 숫자이며 범세계주의 동향과 지역통합의 가속화 등을 감안하고 관광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이동현상임을 전제한다면 동아시아 지역은 향후 2000년대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유하게 된다. 동아시아 지역의 도서관광지들이 공동의 협력을 통해 각자의 관광구조의 유사성과 보완성을 잘 살려 나간다면 동아시아 도서관광권은 세계관광의 核으로 등장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사의 중심무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중심에 있으므로 동아시아 도서관광지들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 만약 동아시아 4개 관광지의 관광제휴·협력이 이루어져 이 지역의 관광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된다면, 세계 최대의 신비하고 이국적인 '동양관광권'이 구축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 변화의 잠재력이 부여하는 기회를 최선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주관광은 본도와 환경과 역할이 비슷한 동아시아의 도서관광지와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제주는 이제 이 동아시아의 분출하는 관광잠재력을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승화해야 한다. 동아시아 관광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건전한 관광체계의 육성,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제주관광의 체질개선, 효율적인 관광홍보, 국내관광과 국제관광의 균형, 장기발전을 위한 시장다변화 등 그 동안 제주관광의 숙제로 지적돼온 여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시간은 흐르면 되돌릴 수 없고 기회는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동아시아의 관광잠재력은 21세기 제주관광진흥을 노크하는 또 하나의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7월 23-25일에 제주도가 주도가 되어 발리주, 해남성, 오키나와현간의 다국적 지방정부간 공동협의체로서 창설된 섬관광정책 포럼은 도서시대, '섬들간 네트워크' 중심지로서의 제주의 위상학을 실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 (3) 해양 시대, '한국의 침병'으로서의 제주의 위상학

태평양의 세기란 평화의 세기인 동시에 해양시대의 전개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거니와, 이제

제주도는 그야말로 해양시대를 이끌어갈 첨병으로, 21세기적 해양일류한국의 발전을 이끌어갈 첨병으로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난 시기의 반도적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해양시대의 첨병으로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도서간 네트워크의 구축은 좁게는 제주도의 생존전략이고 발전전략이 되겠지만, 이를 바탕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제주도가 해양시대 일류 한국을 세계로 이끌어가고 세계를 한국으로 끌어오는 발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도서간 교류·협력을 통한 정지작업을 해 나가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제주도가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물류기지 및 국제적인 상품판매·전시 센터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상품의 유통에 소요되는 물류비는 상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항만시설의 확충 및 물류기지화는 국제화·세계화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일본과 대륙을 쉽게 연결하고 국제 운송비가 가장 저렴한 해운의 중심지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산업 중심국인 한국, 일본 및 중국의 상호 교역 대상품을 보관·전시하고 산업 정보를 전달하는 데 따른 거리상의 이점이 확보될 수 있는 중심적 위치에 있는 제주도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동북아 경제권의 역내물류체계화의 거점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편 국제물류기지 및 대규모 상품 전시·판매 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관세 및 기타 무역 규제를 철폐하는 자유항 내지 자유항지역 또는 자유무역지대와 대규모 면세상품의 전시·판매장 및 국제 상품정보 센터의 설치가 요망된다. 특히 제주도를 환태평양권 내지 동북아 해역의 인적·물적 교류·협력 및 휴양·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해양과학기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첨단시설을 갖춘 무역항이 반드시 필요하며 여기에 자유항의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된다(오용석, 1993:148-167).

### Ⅲ. 제주도의 세계화 전략으로서 동아시아 도서간 협력

#### 1. 동아시아 도서들의 성장 잠재력

여기서 분석 대상지역으로는 제주도를 주축으로 하여 지난 97년 7월 본도와 섬관광정책 포럼을 창설한 동아시아의 대표적 도서관광지인 발리, 해남, 오키나와를 선정한다. 이들 각 도서의 일반 현황과 관광정책 및 관광자원을 살펴보면서 그 성장 잠재력을 보기로 한다.

##### 1) 해남섬

###### (1) 일반개황

- 중국 제2의 섬 해남도를 중국인들은 寶島라 부르고 있다. 그 까닭은 이 섬에는 여러가지로 풍부한 자원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끝없는 가능성을 보유한 섬이기 때문이다.
- 그 풍부한 자원으로는 먼저 남해의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 산호, 진주 같은 수산물이 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사탕수수 고무야자목재 그리고 중국에서는 여기서만 재배되는 커피가 있다. 과일은 남국의 독특한 코코야자, 바나나, 파인애플, (리즈,롱엔), 망고, 파파이아, 재

크 프루츠 등이 있다. 그밖에 광물도 풍부하여 철광석·주석·알루미늄·구리·망간·석탄·석유가 산출되고 있다.

- 관광지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산수가 좋다. 끝없이 푸른 바다, 흰 모래, 녹색 야자수, 이 3색의 대비는 동남아시아에 가까운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겨울에 중국의 북방이 얼어붙을 무렵에도 이곳 해남도에서는 수박을 먹을 수가 있다.
- 해남도는 중국 대륙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단순히 남쪽의 섬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근년에 들어와서는 정부의 경제개방정책에 의하여 홍콩 등과의 교역도 활발하다. 그에 따라서 들어온 다량의 외국제품과 문화가 외지에서 온 사람에게 중국과는 다른 무엇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 현재 해남도에는 베트남에서 귀국한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들은 심룽 등지에 화교농장을 개척하여 커피, 후추 등을 재배하고 있다. 그들의 수는 이미 3만명에 가까우며 섬의 경제,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이곳 섬의 민족구성도 매우 특이하다. 현재, 섬의 총인구는 500만명으로 그 가운데 이섬의 원주민인 여족이 70만명, 명나라 시대에 광서에서 이주시킨 묘족이 3만명, 그밖에 좡족, 회족 등도 살고 있다. 이 가운데 묘족은 섬의 최고봉인 1886m의 우즈산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들의 생활을 보고 싶다면 통십이라는 마을에 가면 된다. 해남도는 소수민족문화의 보고이다.
- 1988년 4월부터 성으로 승격되어 경제특구로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해남도의 입지특성은 다음과 같다.
  - 위치 : 해남성은 광둥성 남서쪽, 베트남 동쪽, 필리핀 서쪽 해상에 위치하며 해남본도를 중심으로 남사군도, 서사군도 및 기타 섬으로 구성됨.
  - 면적 : 34천 Km<sup>2</sup>(중국 총 면적의 0.35%로 제주도의 약 18배)
  - 인구 : 6.9백만 명(1992년, 중국 전체인구의 0.75%)
  - 행정구역 : 3시, 15현, 305진
  - GNP : 141.7억 원(1992년, 중국전체의 0.6%)
  - 1인당 GNP : 2,053원(1992년, 중국평균 : 2,051원)
  - 주요도시 : 해구(Haikou, 省都), 삼아(Sanya), 통십(Tongshi)
  - 주요산업 : 열대작물 및 열대과일, 수산업 및 수산양식업, 관광산업

## (2) 관 광

- 해남성은 세계관광기구(WTO) 사무총장이 방문하여 '해남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극찬할 정도로 매력적인 열대해변, 화산도로서 특색있는 경관, 온천, 잘 보존된 소수민족의 민속문화, 진기한 열대동식물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관광객유인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 1979년 이후 관광자원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제7차 5개년계획에서는 해남을 전국 7개 관광 중점지역의 하나로 지정함. 특히 1988년 省으로 승격된 이후 해남성 정부는 관광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外資를 적극유치, 三亞市를 관광거점으로 삼아 적극적인 관광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 관광개발 투자자본은 주로 프랑스, 홍콩, 대만,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으로 부터의 외국자본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 외국자본에 대해 공업부문보다 더 많은 투자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1980년 이후 관광개발투자가 연평균 48% 정도 증가하고 있다.
- 최근 해남성의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외국기업들이(주로 France의 Club Med, Hong Kong의 Henry Fok 및 Sun Hung Kai) 호텔 등 휴양지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해남성의 관광개발 잠재력이 국제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1993년 강택민 주석이 해남성을 방문, '관광을 해남성의 주력산업으로 하고 관광산업에 바탕을 두어 기타 산업을 촉진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1996년 '중국방문의 해' 행사의 주제를 '重點-海南'으로 설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광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남의 관광시설은 사철 해수욕이 가능한 삼아 해양리조트를 비롯, 관광지 50여개(95년까지 80개 정도 개발예정), 외국인 이용가능 3star 이상 호텔 136개(60개 추가 개발예정), 여행사 180여 기업에 달하고 있다.
- 현재 독일, 방콕, 일본(나고야), 싱가포르와 전세항공(Charter Tour) 루트를 개설하고 있으며 이를 더 확충하기 위해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하와이 일본 兵庫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발리 및 제주와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 1993년 해남의 외국관광객 방문자 수는 26.9만 명으로 전국 10위를 기록하였고, 관광 외화수입도 101.3백만 달러로서 전국에서 8위를 차지함. 해남의 국내관광객수는 약 180만명 정도에 달한다.

### (3) 외국인 관광투자 환경

#### 가. 투자정책 및 제도

- 1988년 해남성 전역을 경제특구로 지정, 지역특성 및 개발조건에 맞는 관광산업에 대해 세제혜택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 투자관련 법규
  - 1988. 5. 4 제정, 공포 : 國務院關於鼓勵投資開發海南島的規定
  - 1988. 8. 5 제정, 공포 : 海南省人民政府關於鼓勵投資稅收優惠辦法
  - 1991. 3. 17 제정, 공포 : 海南經濟特區外商投資條例
  - 기타 34개 관련 법규가 있으나 최근에 시행된 海南經濟特區外商投資條例가 이들을 총 망라하고 있음.

#### 나. 투자장려 및 우대조치

- 세제상의 혜택
- 외환 및 토지사용에 대한 혜택
- 기타 우대제도

## 2) 발리섬

### (1) 일반개황

- 발리는 인도네시아 27개 주의 하나며, 타 주에 비해 군출신이 아닌 힌두교가 주지사로 임명

되고 있다. 힌두교 전통이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지역으로서, 이는 힌두교도들의 단합과 외세영향을 적게 받은 탓이라고 한다. 화란이 수차 발리 지배를 시도하였고 일부 지역을 일시 지배 하기도 하였으나 완강한 저항으로 전면적인 지배에 실패하였다.

- 찬란한 힌두문화, 아름다운 해변, 원시적인 농경이 서양인들에게 소개되어 서양인들의 호기심이 높아감에 따라 관광객이 쇄도하고 있어 자국민 보호를 위해 호주, 핀란드, 이태리영사관이 설치되어 있다.
- 자바섬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화 속의 발리섬은 5,632평방킬로에 260만의 인구가 2-4천 명씩 한 부락을 이루고 섬의 남쪽 구릉지대에 논을 따라 모여살고 있다. 섬의 북쪽 자바해 연안 해안선을 따라 여기저기 부락들이 산재해 있다.
- 부락들은 전통적으로 완전 자급자족의 경제체제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 이 섬의 특징이다. 부락의 구성원은 대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종교를 중심으로 자치적으로 굳게 결속되어 있다.
- 옛날부터 "Banjar"라고 부르는 기구가 마을의 기본 조직체였으며, 행사나 복지사항에 관한 결정 등이 "Banjar"에서 토의되며, 구성원은 결혼한 성인 남자들이다. 이러한 협동 자치기구가 있는 반면, 부락의 정치 경제적 구조는 힌두 카스트제를 따라 신분 제도가 지켜지고 있다.
- 발리의 언어는 서민층이 쓰고 있는 폴리네시아에서 온 말과 상류층인 특별 계층이 사용하고 있는 자바궁중언어(산스크리트에서 음)로 나뉘어져 있다. 서민층들은 상류층 사람들에게 말할 때 반드시 이 고급언어를 써야하며, 대답할 때는 자신들의 언어인 하급 언어를 써야 한다.
-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양 계층에 공히 통용되는 중간언어가 있으며, 학교에서는 현대 인도네시아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형제들이 담으로 둘러쳐진 커다란 주택 안에 모두 모여 살며, 젊은이들은 종교 교육을 선조로부터 전수받고 여성들은 종교 교육에 참여할 수 없어 남자들만이 교육을 통해 발리의 전통과 예절을 배운다.
- 발리의 대가족 생활은 사랑과 존경과 의무가 중시되며, 이것이 발리의 생활과 문화의 근간이 되고 있다. 발리인들의 식생활은 매우 단조로우며, 하루 두세끼의 흰 쌀밥 또는 감자나 옥수수를 섞은 밥을 먹는다.
- 발리에 산재한 대중 식당 Warung은 일종의 카페로서 커피, 차, 과자나 담배 등 먹을 것과 일용 잡화를 파는 작은 가게이며, 길가에 있어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로도 이용되기도 한다.
- 발리의 유명한 음식들은 새우요리, 양고기, 돼지고기, 닭이나 거북이고기, 산적, 수마트라커리, 볶음밥, 가도-야채무침, 자바의 닭곰탕, 바나나 잎사귀에 싸서 구운 오리고기 등이고 음료수로서는 야자수, 야자위스키, 쌀로 빚은 술 등이 있다. 섬 어디서나 열대지방에서 볼 수 있는 과일들이 있다. 발리 사람들은 대개 오른손으로 밥을 뭉쳐서 먹는다.
- 발리하면 곧 힌두교가 떠오를 만큼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한 힌두교 지역이며, 15세기 인도네시아 전역에 번창하던 힌두교가 회교와의 치열한 종교 전쟁끝에 패배하여 발리섬으로 쫓겨갔다고 한다. 주민들의 95%가 힌두교도이며, 나머지 5%는 잡다한 종교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3만여개의 힌두 사원과 여러가지 신비스런 발리춤들은 힌두교의 위대한 유산이다. 주민들은 이를 자랑으로 여기고 발리만이 그들의 유일한 낙원으로 여기고 있다.

## (2) 관 광

발리의 관광은 짧은 지면에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 여기에서는 발리의 관광매력을 구성하는 주요인자 몇가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 가. 주요 관광지

- Sanur 해변
- Kuta 해변
- Kintamani 산정
- Badung 해안
- Tampak Siring 성전
- Gianyar 직물
- Art Centre[Abiankapas]
- Ida Bagus Njana & Ida Bagus Tilem 목각
- Ubud
- Mas
- Bedugul 휴양지

### 나. 풍부한 문화자원

- 발리 힌두와 무용
- 발리 민속춤
  - 껌껌춤[Kecak 춤, 원숭이춤]
  - Sanghyang 춤
  - Ramayana 춤
- 발리의 전통장례식
- 신비한 청동의 교향악 가믈란의 음악
- 박물관, 예술센터, 도서관 등

### 다. 해양스포츠

- 다이빙(Diving)
- 서핑(Surfing)
- 이외에도 윈드서핑(Wind Surfing), 슈너르켈링(Schnorcheling), 파라세일링(Parachute Sailing), 카누(Canoe), 수상스키(Water Ski), 제트스키(Jet Ski), 낚시(Fishing) 등의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 라. 쇼 핑

- 발리는 관광객에게 쇼핑천국이다. 발리의 대표적 선물로는 목각품, 흑단제품, 발리의 회화, 은제품, 인도네시아의 Textile · Batik · Ikat, 발리드레스, 동제품과 보르네오 백, 프루츠키빙(과일조각), 인도네시아 담배(끄레벡 Keretek), 카세트 테이프, 와양꼴릿(그림자연극)의 인

형 등이 있다.

### 3) 오키나와

#### (1) 일반개황

- 오키나와는 일본의 최남서단에 위치한 현으로 琉球列島가 그 영역이다. 유구열도는 북위 24도-27도, 동경 122도-131도에 걸쳐 큐우슈우 남단에서 대만에 이르는 1,300km에 이르는 해상에 위치한 크고 작은 6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 오키나와는 전후 27년간 미국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소화 47년 5월 15일 일본에 귀속됐다. 오키나와의 면적은 2,254.52km<sup>2</sup>이고, 인구는 121만1천486명, 행정구역은 10市 15町 28村이다.
- 오키나와는 그 지정학적 위치와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본 본토와는 다른,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중세와 근대를 거치는 동안 琉球왕조의 지배에 허덕였고 명치유신 이후에도 험한 길을 걸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美日 양군의 격전무대가 된 일본 유일의 현이었고 전후 27년간은 군사전략상 요충지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미국의 지배하에 있었다.
- 소화 47년 본토 복귀가 실현됐다고 하나 현내 47개소, 현 총면적의 11%를 점하고 있는 美軍 군사기지시설은 그대로 유지돼 오고 있다. 현의 인구밀도가 본토의 2배에 가까운 것을 감안한다면 '현내에 군용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군용지 사이에 市町村이 있다'라고 말하는 편이 사실에 가깝다.
- 오키나와는 아열대성 해양섬으로 특이한 자연 및 인문경관을 비교적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국적인 정서가 물씬 풍기는 남국의 바다, 수려하게 펼쳐진 거대한 산호초군 등이 그 풍광을 자랑하고 있고 西表국립공원, 오키나와 戰績國定公園, 오키나와 海岸국정공원, 久米島 縣立자연공원 등 많은 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아열대적 기후 특성으로 인하여 오키나와 이외의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동식물이 수없이 분포하고 있다.
- 오키나와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고 島嶼라는 隔絶性 때문에 일본 본토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춰버린 고대언어를 비롯한 고대 민속문화가 거의 원형대로 이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오키나와 언어에 '마씨'라는 어미가 남아있는 바, 이는 濟州語와 관련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 海神祭, 豊年祭, 그물끌기 등 많은 민속행사가 연중 거행되고 있으며, 오키나와 독자의 풍토를 기초로 일본본토, 중국, 조선, 동남아 등과 오랜 교류협력을 통해 형성된 다양한 전통공예품이 있으며, 특산품도 다채롭다.

#### (2) 관 광

- 전후 27년이 지나서야 오키나와는 일본에 복귀했다. 동경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로 겨우 2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통관, 외환소지, 비자 등 출입국 절차가 전보다는 한결 간편해져 국내 유일의 아열대현인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 일본본토에서는 볼 수 없는 이국적인 경관, 풍부한 문화재와 다양한 민속행사가 오키나와에 있다. 무엇보다도 맑고 푸른 하늘과 남국의 태양에 하얗게 빛나는 산호초가 물든 에머랄드색의 바다가 있다. 과거 전쟁이 남긴 상처를 오늘에 들려주는 고귀한 역사의 현장이 오키나

와는 있다.

- 현재 오키나와의 관광매력은 크게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① 제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로서 오키나와를 그리는, 이른바 전적지, ② 오키나와의 생활실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美 군사기지, ③ 유구왕조 시대부터 전승돼 오면서 일본과 중국, 동남아의 문화가 한데 섞인 독특한 문화, ④ 수려한 南國的 풍광을 바탕으로 한 리조트 등이 그것이다.
- 전적지로서의 오키나와는 전후 50여년이 지난 오늘 과거 전쟁의 상흔을 보면서 인류가 나아갈 길을 사색하게 해주며, 군사기지로서의 오키나와는 지금 이 현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한눈에 보여준다. 특히 미군기지에서는 물품세가 5%이기 때문에 값싸게 외국상품을 쇼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오키나와의 문화관광은 고난에 찬 오키나와의 역사와 고대로부터 내려 온 중국, 한국, 동남아 등 인접지역과의 문화교류를 살필 수 있게 해준다. 남국의 오키나와는 태양, 바다, 모래, 해양스포츠 등이 어우러져 관광객에게 휴식과 안락을 선사한다.
- 물론 오키나와 관광매력을 구성하는 이 네가지 요소는 각기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엮여 다양성을 나타낸다. 지역적으로도 나누어져 있다는 점에서 오키나와 관광을 풍요롭게 해준다.

### 3. 동아시아 도서관 협력의 현황과 과제

동아시아 도서관관광망 구상의 목표를 설정한다면, 다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세계 최대의 도서관관광 구축과 이의 구체화를 통한 동아시아 역내 유동관광객의 유치이다. 제주, 오키나와, 해남, 발리를 잇는 도서관관광망이 구체화되어 동아시아 도서관관광지들이 각 지역의 자원성과 문화성을 바탕으로 '단일 관광목적지대'로 부각된다면, 이 구상은 '오리엔탈 관광뷰'를 조성하기에 충분하다.

둘째, 이를 통한 관광경제의 전개이다. 도서관관광망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제주관광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이 제주도에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제주도를 세계적 관광지로 한 수준 더 끌어올리고 제주도의 관광시장 다변화를 꾀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를 증대, 궁극적으로 향후 제주의 지역살림을 책임질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한다.

셋째, 제주도의 세계화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동아시아 도서관관광지들을 결속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주도적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제주도의 대외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한다. 특히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주행정의 국제담당 역량과 도민의 국제성을 함양한다. 동아시아 도서관관광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세계화 마인드를 고취하고 국제이해나 우호평화의 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지난 7월 23-25일 제주도가 주도가 되어 발리주, 해남성, 오키나와현간의 다국적 지방정부간 공동협의체로서 창설된 섬관광정책 포럼을 창설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이들 4개지역 지사·성장들은 포럼행사를 매년 순연 개최하는 것을 정례화하는 한편 포럼본부를 제주에 둔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 교류범위도 다른 섬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관광진흥 분야외에도 경제 문화 교육 등 타분야로 확대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공동이익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같은 포럼창설을 계기로하여 상호보완관계와 다양성

을 인식하며 우의를 다짐과 동시에 이제 고립에서 연대로, 한계에서 무궁으로 위대한 섬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처럼 포럼은 그것이 기본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참여지역 간의 관광진흥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도시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도시간의 상호협력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포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져 가야 할 과제들을 예시해 두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

- 관광루트 개발
- 공동협력 마케팅 - 시장조사, 관광상품개발, 공동홍보 등
- 단일관광목적지 컨셉형성
- 공동 관광자원조사 및 가치평가
- 관광지 공동개발
- 합작관광기업의 공동 설립
- 문화관광의 활성화
- 관광인력의 자질향상과 서비스의 표준화
- 관광객 안전 공동보장
- 출입국의 완전자유화
- 환경을 보전하는 녹색관광(Green Tourism)의 구현
- 공동으로 동아시아 관광정보센터 설립추진
- 기타 지역간 관광교류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 관광정보제공 및 관광분야 연구사업

포럼은 이상과 같은 도서지역간 관광교류협력이 정착, 증진되고 난 연후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 등 다방면에 걸친 지역간 교류협력기구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확대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농업기술교류
- 도서지방 특유의 고유민속문화 연구 및 교류
- 각 지역 지방대학간의 학술교류
- 각 지방 언론사간의 정보교류
- 도서지역 공동의 환경조사 및 연구
- 스포츠 교류
- 지방공무원 교류
- 청소년 교류
- 기타 도서지역간 이해 및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나아가 포럼은 그 내용의 확대와 더불어 참여대상 도서지역의 확대를 기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사할린, 태평양지역의 괌, 사이판, 하와이와 카리브군도 등이 향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외래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배후시장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유럽의 각국.

미국, 일본을 읍저버 자격으로 동아시아 도서관정책 포럼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98세계 섬문화축제'기획은 이를 실험하는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볼 때, 섬관광정책포럼이 동북아지역 섬들의 연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번의 '섬'축제는 세계의 섬들을 연대의 고리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될 것이다.

## IV. 동아시아 도서관 협력을 위한 대학의 역할

### 1. 대학교육의 세계화

연구와 교육과 사회봉사라는 대학의 세가지 기능 또는 사명은 시대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달라져 왔다. 최고급의 지성인 양성을 목표로 했던 고전적 의미의 대학에서는 연구를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적 기능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의 대학에서는 교육과 사회봉사의 기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사회봉사를 강조하는 입장은 대학과 사회의 발전은 서로 관련되며, 대학과 사회 모두가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학은 사회를 변화시키며, 반대로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대학 자체도 변화하고 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화·세계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교육의 세계화는 외국어 교육, 국제적인 시각에서 운영되는 커리큘럼, 유학기회의 확대, 외국학생의 유치, 교직원의 국제교류, 국제개발원조 프로그램의 개발, 대학간의 교류협정 체결, 활발한 국제공동연구, 지역연구(area studies)의 활성화,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Mallea 1996:113). 국제교류를 통한 이러한 대학교육의 세계화는 지식과 문화적 자원을 공유하고, 기술이 확산되는데 큰 도움을 준다(김성열 1995:35).

대학교육의 세계화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수단인 동시에 대학의 성격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Windham 1996:21). 국제화나 세계화는 다양성이라는 맥락에서 인간과 문화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 지식, 문화 등을 인정하는 보편화(universalization)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자기 문화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긍정적인 평가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문화를 인정하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국제협력은 자기 문화에 대한 확고한 뿌리와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동시에 필요하다(Windham 1996:27). 이를 위해 대학은 자기 지역에 대한 연구와 다른 지역에 대한 지역연구를 동시에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지역연구가 학교교육 커리큘럼에 반영될 때,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교육과 연구가 활성화된다.

나아가서 대학교육의 세계화는 다른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통해 공존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점에서 사회의 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김용범 1995). 대학교육의 세계화가 사회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대학의 사회교육을 들 수 있다. 대학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다른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따라서 대학의 사회교육은 한 사회의 국제사회에 대한 감각을 높여 주며, 나아가서 국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대학이 이러한 사회교육을 담당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지역을 넘어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

하는 데 있다.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은 각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 따라서 대학은 공동의 관심을 바탕으로 교육의 세계화를 통해 지역을 넘어선 새로운 공동체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 대학간의 국제협력

### 1) 지역연구의 활성화

한 지역의 국제화와 세계화는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신태환 1983).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협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기 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은 자기 사회와 다른 사회에 대한 지역연구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지역연구는 해당지역간의 공동연구가 더욱 효과적이다.

지역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연구는 각 지역의 대학이 수행하는 자기 지역에 대한 연구가 토대가 된다. 따라서 동아시아 도서들의 각 대학은 각자의 도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은 학과와 대학연구소 뿐만 아니라 대학바깥의 연구소와 관련 학회를 총망라하여 지역연구의 센타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도서들에 대한 지역연구는 첫째, 도서연구라는 관점에서 수행될 수 있다. 제주도, 오키나와, 발리, 해남도 등 섬관광정책 포럼에 참여하는 지역들은 한 국가의 변방에 위치한 부속도서이다. 섬은 개방성과 폐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섬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섬 바깥의 입장과 섬 안의 입장은 다르다(니이하라 1997). 섬 바깥의 입장에서는 중심을 보편성으로 인식하고, 섬을 주변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섬 안의 입장에서는 개방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변방으로서 중앙으로부터의 억압을 역사적으로 경험하거나 중앙과는 사뭇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은 섬이 가지고 있는 개방성으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도서들에 대한 지역연구는 섬 안에서 대륙문화와 해양문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혹은 중앙으로부터 유입된 문화와 기층문화가 어떻게 혼재하고 있는지, 또한 여러 문화가 충돌 내지는 혼합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생활양식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등을 연구주제로 삼을 수 있다.

둘째, 지역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로 관광현상에 대한 비교연구를 들 수 있다. 섬관광정책 포럼의 결성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를 비롯한 해당 도서들은 섬이라는 입지적 조건과 기후로 인해 관광산업이 주가 되는 지역개발을 시행해 왔다.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은 종종 지역주민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실제로 관광지의 개발이 저개발 지역에 경제발전을 가져온다는 단순한 논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때, 지역주민에게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관광은 산업인 동시에 하나의 사회문화적인 현상이다. 관광은 문화가 상품으로 등장하는 생산양식이라는 점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무공해 산업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재고되어야 한다. 관광활동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다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관광객의 수가 관광지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관광행위가 지역사회 규범으로 볼 때 부적합하다면, 관광활동은 파괴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루키사스 1987). 따라서 관광현상에 대한 도서간의 비교연

구는 해당 도서 대학간의 국제협력이 절실한 분야이다.

지역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 각 도서들은 자기 지역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다른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대학간의 공동연구는 학문적으로나 국제협력을 위해서나 매우 필요한 것이며, 대학은 지역연구의 센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지역연구의 센타가 되어야 하는 동시에 지역정보화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지역정보화(regional informatization)란 일반적으로 정보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해당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송태수 1997:136). 이러한 지역정보화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지역연구가 지역사회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역정보화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정보를 축적하고 원활하게 제공하는 일을 가리킨다. 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정보화를 통해 지방행정의 정책적 대안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도서간의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자기 지역에 대한 연구와 정보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지역정보화 역시 대학간의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라 하겠다.

## 2) 대학간 네트워크의 구축

도서지역연구, 관광에 대한 비교연구, 지역정보화 등 도서대학간 국제협력의 분야는 결국 대학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제주대학교의 경우, 섬관광정책포럼에 참가한 섬들 중에서 현재 오끼나와의 류큐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국제학술교류협정은 협정 체결에만 의의를 둔 것처럼 보인다(제주대학교 자체평가연구위원회 1996). 네트워크의 구축은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이라는 방식보다 더 구체적인 행동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굳이 외국을 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외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고, 각종의 교육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긴밀한 연결망을 말한다.

따라서 섬들의 대학은 협의를 통해 각 대학마다 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그 교육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섬들간 공동의 외국어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다양한 외국어를 접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에 참여한 섬들로서는 자문화를 보다 용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소개 할 수 있게 된다. 국제 교류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은 단순하게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연구의 주제를 개발하고 현실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내 기관들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각 대학에 해당 도서간 교육과정과 공동연구만을 전적으로 관장할 센타를 먼저 설립하고, 센타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학간 네트워크는 학술공동체의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섬들간의 국제협력의 기틀을 제공하게 된다. 대학이 다른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은 여타의 상호교류에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 V. 결 론

태평양이 갈라놓았던 땅들이 태평양이 새로운 교통로가 된 시대에 와서 이웃으로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제주, 발리, 해남, 오키나와는 이제 진정한 뜻에서 이웃이다. 대륙문화시대에는 번두리에 머물러 있어 문명발달의 속도가 뒤쳐졌던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섬들은 이제 새로운 해양문명시대에는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나서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그 첫 결실이 '섬관광정책포럼'이고 그것으로 협력의 토대는 만들어졌다고 본다.

이제 어떻게 하면 더욱 신뢰와 협력의 범위를 넓혀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두가지 점을 재확인해 둔다.

첫째, 도서관 협력은 당장 눈앞에 놓인 편익을 넘어서는 거시적 역사인식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관광객 유치방안 등의 구체적 업무협의 차원을 넘어 21세기에 전개될 새로운 해양문명시대에 무엇을 공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토론하면서 협력을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에서 예시했듯이 보다 구체적으로 단기적 증장기적 과제와 협력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둘째, 공동관심사를 공동으로 연구해 나갈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관광 및 문화연구, 해양환경보전, 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 해양생태학연구, 관광과 자연보전의 조화 등을 함께 연구할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각 섬들간 대학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 대학 및 연구소간의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의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생 및 교수의 교류를 추진하며, 공동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의 공유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제주대학교가 해나갈 중요한 역할이 있다.

## 참고문헌

- 김광린 1997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과 한반도 안보환경』, 아태평화재단.
- 김성열 1995 “국제화 시대의 제주 고등교육”, 『국제화시대의 제주교육』, 제주국제협회의 회·제주도 교육청·제주교육대학교 편, 서울: 도서출판 한울.
- 김용범 1995 “이(異)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국제화시대와 국제이해교육”, 『국제 화시대의 제주교육』, 제주국제협회의회·제주도교육청·제주교육대학교 편, 서울: 도서출판 한울.
- 김학준 1997 “오늘날의 국제정세와 아시아 - 태평양의 장래”,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제주 발전연구원, 『아시아 도서관 협력: 관광과 문화교류』, ITOP포럼기념 국제심포지움 자료.
- 니이하라 미치노부 1997 “도서성 이론에 관한 논의”,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섬에서 세계를 본다> 추계세미나(9월 27일, 제주대) 발표논문.
- 송태수 1997 “지역정보화와 대학의 역할”, 『사회과학』 4:131-156, 경원대학교 사회과 연구소.
- 신태환 1983 “한국 대학교육 발전의 좌표: 2,000년대를 향하여”, 『한국대학교육발전의 좌표』, 대학교육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 보고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신행철 외 1995 “제주도의 국제화·세계화에 대한 기초연구: 일본 북해도 및 중국 해남도와의 비교분석”, 『제주도연구』 12:273-305.
- 오용석 1993 “동북아지역 물류체계화와 제주도의 국제물류기지화”, 제주상공회의소·제주국제협회의 편, 『개방화시대의 제주경제』, 서울:한울.
- 이상우 1997 “海洋時代 섬들간의 協力”, 『섬관광정책 포럼창설』, 제주도.
- 제주대학교 자체평가연구위원회 1996 「1996년도 대학 종합평가인정을 위한 제주대학교 자체평가 연구보고서」.
- 제주도 1995 「환태평양 시대 제주도의 세계화 전략: 기본구상」.
- 루키사스, 필리포스 1987 “관광과 환경의 충돌: 그리스 미코노스의 사례.” 『관광과 문화』, 전경수 편역, 서울: 까치.
- 홍승용 1997 “21세기를 향한 선진해양정책”, 『21세기를 향한 제주의 해양화』, 제주국제협회의회·제주도수산해양개발협의회 공동주최 세미나 자료집.
- Mallea, John 1996 The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 Stakeholder Views in North America.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 Paris: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Windham, Douglas M. 1996 Overview and Main Conclusions of the Seminar,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 Paris: OECD.